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동향에 관한 주제어 연결망 분석

Examining News Report Research Trend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es

조이영, 안도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Yiyoung Cho(choyiyoung@gmail.com), Dohyun Ahn(dahn@jejunu.ac.kr)

요약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뉴스 보도를 다룬 국내 학술 논문의 주제어에 대한 연결망을 통해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보았다. 총 1,108편의 논문에 제시된 4,410건의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언론 보도를 다룬 연구에서 프레임, 의제설정, 제삼자효과, 선택적노출, 이용과충족 등이 주요 이론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영역으로는 정치, 경제, 과학보도, 국제뉴스 및 관광 등을 다루었으나, 문화, 스포츠 및 생활뉴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체별로는 전통매체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연구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방송뉴스와 온라인뉴스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 중심어 : | 뉴스보도 | 연구동향 | 연결망 분석 | 저널리즘 | 주제어 분석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search trends via network analyses of keywords appeared in academic research articles about news reports in South Korea during the last 10 years from 2006 to 2015. Keyword network analyses of 4410 keywords from 1108 articles suggested that framing, agenda setting, third-person effect, selective exposure, and uses and gratification were main theories but most studies used framing theory. Research areas included news reports on politics, economics, science, world issues, or tour. However, research on news reports covering culture, sports or daily life were not identified. In terms of media, research on both traditional and emerging media were ample. Research on broadcasting new, online news, and social media were frequently observed.

■ keyword : | News Coverage | Research Trend | Network Analysis | Journalism | Keyword Analysis |

I. 서론

뉴스 보도의 여러 측면과 양상을 살피는 연구는 사회과학 콘텐츠 연구의 주요 영역이다. 뉴스 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언론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뉴스 보

도의 하부 영역에서 특정한 주제를 선택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언론학의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뉴스보도 그 자체를 주제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뉴스보도 연구를 대상으로 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6월 13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21일

교신저자 : 안도현, e-mail : dahn@jejunu.ac.kr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keyword) 연결망 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분석은 연구 경향과 지식 체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주제어는 저자가 논문의 연구 분야를 분류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겨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의 출현 빈도가 잦을수록 해당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제어는 연구 경향 및 지식 공유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주제어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함께 출현하는 주제어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보도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주제어 연결망 분석에서 유용한 개념 중 하나가 중심성(centrality)이다. 주제어들 사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을 통해 어떤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활발함’의 다양한 중심성 개념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뤄진 뉴스보도의 경향을 주제어 연결망 분석으로 파악하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321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108건을 수집 분석했다.

II. 문헌 연구

1. 국내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경향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해 언론학 전반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거나 뉴스 보도의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 경향을 일부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동향을 살핀 연구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정보학보』, 『언론과 사회』의 논문을 내용분석한 연구[2]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언론학연구의 전체 논문 545편 중 뉴스 연구가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가 24%, 언론사 연구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연구에 속하는 91편

의 논문에서 메시지 연구가 62%, 송신자 연구와 수용자 연구는 각각 20%, 18%로 집계됐다. 뉴스 메시지 분석이 주로 경제, 정치 뉴스 분석에 치우친 반면에 보도 사진, 신문편집, 문화 뉴스, 스포츠 뉴스, 생활관련 뉴스, 지역관련기사를 분석한 논문은 진무했다. 뉴스 메시지 연구에 비해 뉴스 송신자 연구나 수용자 연구는 매우 취약했다.

뉴스보도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꽤 축적돼 있는 편이다. 선거보도[3-5], 재난보도[6-9] 대북정책 보도 [10], 온라인 저널리즘[11][12] 등 다양한 보도 영역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2.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경향

연구동향 연구는 대부분 내용분석의 방법을 이용한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내용분석이 늘고 있다[13]. 분석방법으로는 주제어 연결망 분석, 저자 동시인용, 논문 동시인용, 군집분석, 분류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다 [14-16].

군집분석과 분류분석 등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특정기간의 3개 매체 6개 분야 기사의 단어에 대해 신문의 논조를 분석했다[17].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SNS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된 특성을 살펴보았다[18].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연결망 구조를 이루는지 분석한 연구[19]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페이스북 여론을 의미망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20].

연결망 분석을 통해 언론학에서 학문적 지식이 공유, 확산되는 구조를 살펴본 연구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언론학보』에 실린 논문의 인용 연결망과 핵심어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21]가 있다. 국내학술지와 국제학술지의 핵심어 연결 구조를 함께 분석해, 두 학술지 모두 핵심어 연결망 구조가 유사함을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지 간 인용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지적 구조를 탐구한 연구도 있다 [22].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연결망 분석을 하는 연구도 꽤 된다. ‘창조경제’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의

미연결망 분석으로 접근하였고[23], 사회적 화두가 된 '빅데이터'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24]. 대선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단어와 연결망 구조를 통해 신문에서 만들어지는 후보 이미지를 추출했다[25]. 한국 사회에서 IR의 개념을 기사 연결망으로 분석했다[26].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해 보도의 특성을 파악했다[27].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이 TV 합동토론에서 사용한 어휘를 대상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해 정치 토론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28].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살펴보고[29].

문화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의 장르, 등급, 배급사, 국적 등 특성을 활용해 연결망을 구축하고 군집 분석을 수행했으며[30],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인간관계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인간관계 및 사회 연결망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확인하였다[31]. 스포츠 영역에서는 프로배구 선수의 사회연결망 구조가 멱함수 법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혔다[32].

한국과 미국의 PR 학계를 비교분석한 연구[1]에서는 국내 학술지 『홍보학 연구』와 국제학술지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에 실린 모든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3. 주제어 연결망 분석의 개념 및 주요 지표

연결망 분석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33]. 사회 연결망이란 다수의 연결된 또는 연결되지 않은 개인(또는 기관)으로 이뤄진 사회구조다. 여기서 연결여부는 친구 관계, 성 관계, 금융 거래, 통신 빈도, 직무적 접촉, 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연결망은 수학적으로 n 개의 점과 이들을 잇는 선들의 모음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이란 이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통계적 분석이다[34].¹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학술 논문에 제시된 주제어 사이의 관계를 부호화하고 연계된 주제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단어를 연결망상의 노드로 보고, 전체 구조에서 노드 간 연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한다[35]. 주제어 연결망은 그 분야의 학문 세계에서의 지식이나 지식을 담은 개념 간의 관계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다.

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주제어의 역할과 주제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주제어가 같이 등장하는 동시출현(co-occurrence)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개념은 그와 공유된 의미나 개념, 유사한 맥락을 가진 개념들과 함께 언급되는 동시출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개념의 역할과 관계 파악이 가능해진다. 한 논문에서 주제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이들 핵심어는 관련성이 높고 반대로 동시 출현 빈도가 낮으면 관련성이 없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연결망 내 여러 노드 즉 주제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어떤 단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노드의 힘(power)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심성이 사용된다. 한 노드가 중심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한 노드가 다수의 이웃을 직접적인 연결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6][38].

연결정도(degree)는 다른 연결점과의 연결 정도를 중요시하며, 연결망 내에서 연결된 노드 수의 합을 말한다. 중심성은 계산 방법에 따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중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있다[39]. 각각의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주제어 연결망에서 중요 단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중요 주제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중심성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연결망 내에서 중요 주제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중심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접 중심성은 각 노드 간의 거리를 근거로 중심성을

¹ 사회 연결망 분석 문헌에서 노드(node)는 꼭지점(vertex), 행위자(actor), 구성원(member) 등으로, 연결선(link, linkage)은 모서리(edge) 또는 이음(tie) 등으로 불린다.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해당 분야에서 연구 빈도가 잦고 중요하게 다루지는 주제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개 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한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 역할의 정도로 중심성을 계산해 연결망 내 부그룹을 연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중개 중심성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집단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연결망에서 중요한 주제어에 연결된 정도를 통해 중심성을 계산한 중심성이라 할 수 있다. 페이지순위는 고유벡터 중심성과 근본적으로 같은 중심성이다. 노드의 연결에 있을 수 있는 임의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페이지 순위의 특징이다. 페이지순위 중심성을 이 연구에 적용하는 이유는 연구 주제 설정에 어느 정도 임의성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연결망은 대부분 내적으로 연결된 정도가 강한 노드들끼리 군집해 있는 노드들의 커뮤니티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결망 내의 커뮤니티를 알면 연결망의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38]. 주제어 연결분석에서 특정 주제어들의 커뮤니티를 파악함으로써 연구 주제를 몇 개 집단으로 군집할 수 있다.

IV.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뉴스 보도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제어 빈도 및 연결망의 중심성을 계산해 주요 주제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빈번하게 사용된 주제어 일수록 많이 연구가 됐고,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연구문제 1: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요 주제어는 무엇인가?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특정 단어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주제어들과 연결된 주제어를 파악해 뉴스 보도 관련 연구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주제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주제어가 어떤 내용의 연구를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문제 2: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요 주제어와 직접 연결된 주제어는 무엇인가?

연구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결망을 하부집단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주제어들이 하위 집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세부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연구문제 3: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제어 연결망의 하위 집단은 무엇인가?

V.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기간 및 학술지

이 연구의 목적은 각 논문에 제시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뉴스 보도를 다룬 논문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단어 간 관계성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대상으로 ‘보도’, ‘기사’, ‘뉴스’, ‘저널리즘’, ‘언론’ 등을 키워드로 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간 발표된 논문을 검색했다. 논문 검색에는 국내 간행된 대부분의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전문정보(academic.naver.com)를 이용했다. 321종의 학술지에서 1655건의 관련 논문이 검색됐고, 중복된 논문을 제거한 뒤 총 1108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논문을 게재 건수별로 정리한 학술지 상위 15위를 [표 1]에 정리했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 가운데 동일한 의미지만 연구자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는 같은 용어로 통일시켰다. 예를 들어 ‘프레이밍’ ‘틀기’ ‘뉴스틀’ ‘미디어프레임’ 등은 모두 ‘프레임’으로, ‘TV 뉴

스,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 뉴스’로, ‘SNS’는 ‘사회연결망서비스’로, ‘제3자효과’는 ‘제삼자효과’ 등으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고유한 주제어는 모두 4410개이다.

표 1. 분석 논문 수 기준 학술지 상위 10위

순위	학술지	논문 수
1	한국언론학보	155
2	언론과학연구	82
3	한국언론정보학보	55
4	한국방송학보	51
5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
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7
7	언론학연구	23
8	커뮤니케이션이론	21
9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0
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2. 분석 절차

국내 뉴스 보도를 다룬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 사이의 연결망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오픈소스인 R[41]의 igraph 패키지[42]를 사용했다.

분석 절차는 네이버 전문정보를 통해 뉴스 보도를 다룬 학술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검색, R을 이용해 크롤러를 만들어 수집했다. 이 데이터 가운데 주제어가 포함된 HTML 노드를 특정해 주제어를 추출해냈다. 개별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았다.

전처리 단계에서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같은 뜻이지만 여러 형태로 표현된 주제어를 통일시킨 뒤 단어-문서 행렬(TDM: Term Document Matrix)을 생성했다. TDM은 개별 주제어를 각 문서(개별 논문)로 정렬한 행렬이다. 행에는 주제어, 열은 개별 논문으로 구성된다. TDM을 이용해 주제어의 동시출현 행렬을 만들고, 연결망 분석을 위한 연결선 목록을 생성했다.

결과의 명료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연결 정도 이상을 보인 주제어를 재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 간 하위 그룹 구성에 적절하도록 각 주제어에 연결된 다른 주제어의 수가 31개 미만인 주제어는 배제하였다. 주제어 간 연결빈도 및 동시 출현하는 주제어의 행렬을 구해 연결망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했다.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에서 하위 그룹

을 찾기 위해서는 스프링글라스(spinglass)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했다[43][44]. 스프링글라스는 널리 사용되는 모듈래리티 기법을 개선한 커뮤니티 탐지 방식이다. 노드 사이의 연결정도와 함께 연결되지 않은 정도를 함께 계산함으로써 커뮤니티 탐지력을 향상시켰다. 즉, 커뮤니티 내부의 노드 간 링크의 존재 및 부존재,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의 노드간 링크의 존재 및 부존재를 함께 계산함으로써 데이터의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면서 커뮤니티의 중복문제 등을 개선했다. 주제어 간 연결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연결이 없을 경우는 부정적으로 파악하여, 밀접하게 연결된 노드들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할당하고, 연결되지 않거나 험겁게 연결된 노드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모으는 방식으로 노드들을 구분한다. 국가 간 협력을 보도한 뉴스 기사에서 정치적 감정 연결망의 커뮤니티를 탐지하기 위해 스프링글라스 모델이 사용되었다[45].

VI.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요 주제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른 주제어와 연결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와 중심성을 파악하였다. 전체 논문에서 해당 주제어가 출현한 단순 빈도가 아니라, 다른 주제어들과 연결되는 연결선 수 또는 연결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연결망에서 주제어가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했다. 연결정도는 연결망 내에서 연결된 노드수의 합을 말한다.

연결빈도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어는 ‘프레임’(376회)이었다. ‘저널리즘’(375회), ‘뉴스’(298회), ‘신문기사’(284회), ‘방송뉴스’(185회), ‘내용분석’(131회), ‘뉴스가치’(122회), ‘의제설정’(103회), ‘포털’(99회)이 뒤를 이었다[표 2]. 연결선 수로 보면 신문기사가 방송뉴스보다 연구 대상으로 많이 다뤄졌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내용 분석이, 주제어로는 뉴스가치가 널리 연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연결빈도로 본 주요 주제어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프레임	376	트위터	66
저널리즘	375	지역신문	66
뉴스	298	인터넷뉴스	60
신문기사	284	게이트키핑	56
방송뉴스	185	뉴스미디어	56
내용분석	131	소셜미디어	56
뉴스가치	122	대한뉴스	55
의제설정	103	이데올로기	53
포털	99	기사제목	50
신문	97	사회연결망서비스	49

주제어의 중요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근접 중심성, 중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페이지 순위를 추가로 알아보았다[표 3]. 연결정도만을 사용해 단어의 중요성을 분석한 일부 연구도 있지만 연결정도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세부적인 특징을, 다른 중심성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근접 중심성, 중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페이지 순위는 모두 주제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측정값을 돌려준다. 이 중심성들은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각각의 중심성 값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제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제어가 다른 모든 주제어들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프레임, 뉴스, 뉴스가치, 신문, 의제설정, 저널리즘, 감정, 객관성, 객관주의, 게이트키핑 순이었다. 뉴스 보도 분야의 연구는 대체로 프레임 및 의제설정 이론을 적용해 내용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신문기사와 방송뉴스, 포털이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해당 주제어와 나머지 다른 모든 주제어들 간 거리를 계산한다. 거리가 짧을수록, 즉 다른 주제어들과 가깝게 연결될수록 큰 값을 갖는다. 연결망에 속한 모든 노드와의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인 프레임, 뉴스, 뉴스가치, 신문, 의제설정은 전체 연결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헤비 노드(heavy node)’라고 볼 수 있다.

표 3. 뉴스 보도 연구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순위	근접	중개	고유 벡터	페이지순위
1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2	뉴스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3	뉴스가치	뉴스	뉴스	신문기사
4	신문	신문기사	의제설정	뉴스
5	의제설정	방송뉴스	포털	방송뉴스
6	저널리즘	신문	방송뉴스	내용분석
7	감정	뉴스가치	뉴스가치	뉴스가치
8	객관성	내용분석	인터넷	온라인저널리즘
9	객관주의	시민저널리즘	시민저널리즘	의제설정
10	게이트키핑	포털	댓글	온라인뉴스

감정과 객관성, 객관주의는 근접 중심성에서만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전체 연결망에서 전반적인 다른 주제어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논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46], ‘제3자 관련 정보제공이 신문독자의 감정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해석 공동체의 해석틀로서의 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48], ‘스마트 폰 앱 뉴스의 연성화 분석’[49] 등이 있다.

논문 출판년도별로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를 살펴보면[표 4] 분석 대상 기간인 10년 가운데 전반부는 전통적 저널리즘과 온라인 저널리즘이 공존하는 양상이라면 후반부는 온라인 저널리즘 자리를 소셜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세부 주제도 보도사진, 국제뉴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표 4. 연도별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뉴스	뉴스	프레임	저널리즘	프레임
저널리즘	광고	저널리즘	프레임	저널리즘
프레임	저널리즘	시민저널리	뉴스	뉴스
신문기사	다큐멘터리	즘 뉴스	의제설정	의제설정
방송뉴스	온라인저널	신문	방송뉴스	방송뉴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문기사	신문기사	프레임	뉴스	국가이미지
저널리즘	내용분석	뉴스가치	신문기사	뉴스
프레임	뉴스	방송뉴스	프레임	뉴스가치
댓글	프레임	뉴스	저널리즘	방송뉴스
의제설정	저널리즘	공정성	소셜미디어	보도사진

중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부그룹과 부그룹을 연결한다. 중개중심성이 크다는 것은 2개 그룹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임, 저널리즘, 뉴스, 신문기사, 방송뉴스, 신문, 뉴스가치, 내용분석, 시민저널리즘, 포털 순으로 중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이 단어들은 근접중심성이 높은 단어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다른 주제어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단어들의 집합을 이어주는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가운데 포털은 근접중심성 값은 크지 않았다. 이는 포털이라는 주제어가 연결망에서 전역적인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즉 포털을 연구한 연구의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주제어 그룹 간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주제어의 영향력이나 중요도를 측정하는 고유벡터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프레임, 저널리즘, 뉴스, 의 설정, 포털, 방송뉴스, 뉴스가치, 인터넷, 시민저널리즘, 댓글 순이었다. 포털은 근접중심성은 높지 않지만 고유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해당 주제어와 연결된 다른 주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 값을 측정한다. 프레임이나 뉴스, 의제설정보다 다른 주제어들과 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포털과 연결된 주제어들이 상당히 주요한 단어인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포털 자체에 대한 연구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페이지 순위에서는 프레임, 저널리즘, 신문기사, 뉴스,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온라인저널리즘, 의제설정, 온라인뉴스가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저널리즘이 다른 중심성보다 페이지 순위에서 높은 값을 보였는데, 서로 연결된 논문 간 주요한 주제어가 온라인저널리즘이라는 주제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페이지 순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 그래프를 보여준다.

페이지 순위에서 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뉴스, 시민저널리즘이 10위 부근을 차지하고, 중개중심성에서도 비슷한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근접중심성에서는 20위권 내에 해당 주제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10년 간 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뉴스, 시민저널리즘이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구 주제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종합하면, 네 가지 중심성 모두 프레임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뉴스 보도를 다룬 연구에서 프레임 이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모든 주제어들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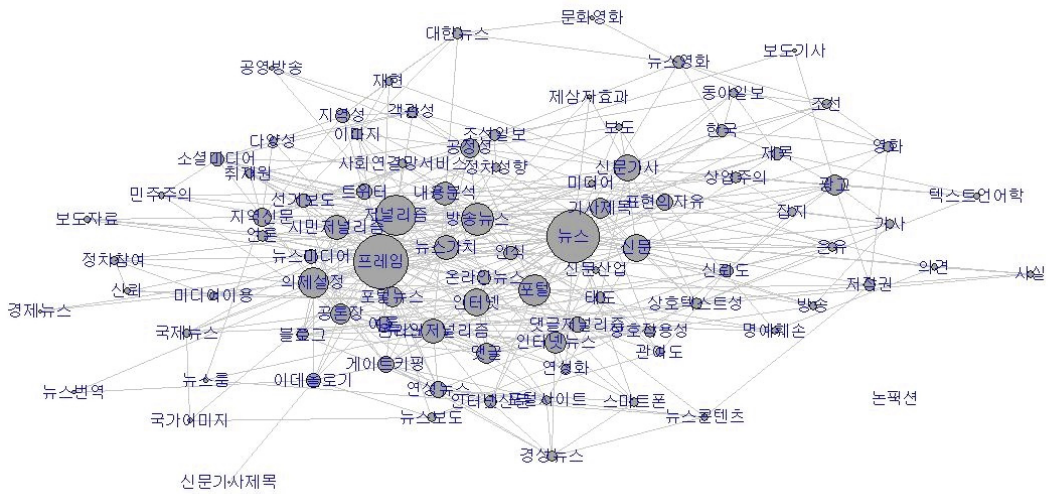


그림 1. 페이지순위가 높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 그래프

고, 다른 하부 그룹 간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며, 다른 주요한 주제어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뉴스, 신문기사, 의제설정, 내용분석이 첫 비슷하게 높은 순위로 등장한다. 신문기사는 중개중심성과 페이지 순위 값은 방송뉴스보다 크지만, 근접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에서는 방송뉴스가 신문기사보다 값이 크다. 방송뉴스가 신문기사보다 주요 주제어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반면, 신문기사는 다른 하위 집단들 간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2: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요 주제어와 직접 연결된 주제어는 무엇인가?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빈도가 상위 150개에 속하는 단어 가운데 Δ 이론 Δ 방법론 Δ 분석 매체 Δ 주제 등 네 가지 카테고리 나눈고 주요 주제어와 동시출현하는 주제어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표 5]. 특정 개념이 그와 의미를 공유하는 개념, 유사한 맥락을 지닌 개념과 함께 언급되는 동시출현을 통해 주요 주제어를 반영하는 연구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하게 나타난 이론은 프레임, 의제설정, 제삼자효과, 선택적 노출, 이용과 충족 이론이었다. 프레임과 동시에 출현하는 주제어로는 인터넷, 뉴스, 과학보도, 보도자료, 과학저널리즘 등이었다. 의제설정과는 뉴스,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프레임이 같이 등장했다. 제삼자효과 이론은 뉴스, 방송뉴스, 신문기사, 자살, 청소년과 함께 나타났고, 선택적 노출은 현저성, 온라인뉴스, 정치성향, 뉴스이용, 댓글과 동시 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인터넷, 뉴스, 댓글, 신뢰, 주한외국인이라는 주제어와 같이 쓰였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내용분석과 심층인터뷰, Q방법론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내용분석은 과학보도, 과학저널리즘, 관광, 미디어, 방송뉴스라는 주제어와, 심층인터뷰는 뉴스가치, 글로벌여성잡지, 다국적광고주, 기사통제방식, 잡지종사자와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Q방법론은 뉴스가치, 트위터, 정치뉴스, 시민저널리즘, 북한뉴스라는 주제어와 동시출현했다. 설문조사와 실험

연구가 주요 주제어로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 단어를 주제어로 빈번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주요 주제어와 동시출현하는 주제어

주요 주제어	동시출현 주제어	
이론	프레임	인터넷, 뉴스, 과학보도, 보도자료, 과학저널리즘
	의제설정	뉴스,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프레임
	제삼자효과	뉴스, 방송뉴스, 신문기사, 자살, 청소년
	선택적노출	현저성, 온라인뉴스, 정치성향, 뉴스이용, 댓글
	이용과충족	인터넷, 뉴스, 댓글, 신뢰, 주한외국인
방법론	내용분석	과학보도, 과학저널리즘, 관광, 미디어, 방송뉴스
	심층인터뷰	뉴스가치, 글로벌여성잡지, 다국적광고주, 기사통제방식, 잡지종사자
	Q방법론	뉴스가치, 트위터, 정치뉴스, 시민저널리즘, 북한뉴스
매체	신문기사	내용분석, 뉴스가치, 관광인식, 매스미디어, 유목체계
	방송뉴스	신뢰도, 과학보도, 관광, 미디어, 내용분석
	온라인뉴스	인터넷, 내용분석, 프레임, 현저성, 저널리즘
	소셜미디어	방송뉴스, 심층인터뷰, 저널리즘, 객관성, 사회연결망서비스
주제	뉴스가치	뉴스, 보도자료, 방송뉴스, 내용분석, 신문기사
	온라인저널리즘	인터넷, 뉴스, 내용분석, 프레임, 댓글
	시민저널리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뉴스, 방송뉴스, 내용분석
	공정성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객관성, 포털
	게이트키퍼	뉴스, 뉴스가치, 포털, 편집, 문화적배경

매체 면에서 신문기사는 내용분석, 뉴스가치, 관광인식, 매스미디어, 유목체계와 동시출현했고, 방송뉴스는 신뢰도, 과학보도, 관광, 미디어, 내용분석이라는 주제어와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는 인터넷, 내용분석, 프레임, 현저성, 저널리즘과 함께 쓰였고, 소셜미디어는 방송뉴스, 심층인터뷰, 저널리즘, 객관성, 사회연결망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주요 주제로 나타난 주제어 가운데 뉴스가치는 뉴스, 보도자료, 방송뉴스, 내용분석, 신문기사와 동시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저널리즘은 인터넷, 뉴스, 내용분석, 프레임, 댓글과 같이 쓰였다. 시민저널리즘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뉴스, 방송뉴스, 내용분석 주제어와, 공정성은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객관성, 포털과 동시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트키퍼는 뉴스, 뉴스가치, 포털, 편집, 문화적배경과 함께 등장했다. 연결망의 구조는 노드 간의 연결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결망 내에서 노드들 간 연결관계의 정도는 밀도와 전이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밀도는 연결망의 전역적 특성을, 전이성은 국소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연결망 밀도는 가능한 연결선의 총 수 대비 관측된 연결선의 수로 정의된다.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 밀도는 0.002로 나타났다. 주제어 간 연결빈도가 31 미만인 단어를 제외한 연결망 밀도는 0.112였다. 『한국언론학보』를 대상으로 한 연결망 밀도 분석 결과는 0.011, JOC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0.017[4]이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적인 동시출현 빈도가 높다는 의미로, 주제어로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뉴스 보도와 관련된 연구 경향의 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 주제가 서로 뭉치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이성은 클러스터링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라 불리기도 하는데,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서로 무리 지어 모여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55].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전이성은 0.24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제어가 인접한 주제어와 연관성을 지닌 또 다른 주제어와 연결되는 비율이 24.3%라는 뜻이다.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연결망을 모의생성하여 그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이 연구의 고유한 주제어 숫자인 4410개의 노드를 갖는 에르되스-레니 무작위 연결망, 바라바시-알버트 선호연결 연결망, 와츠-스트로가츠 좁은 세상 연결망을 각각 생성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고유한 주제어의 수를 노드의 개수로 설정하여 R의 무작위 연결망, 선호연결 연결망, 좁은 세상 연결망 생성 함수를 사용해 연결망을 모의 생성하였다. 무작위 연결망에서는 노드들이 연결은 돼 있지만 파편적인 연결망의 형태로 나타났다. 좁은 세상 연결망에서는 조밀하게 연결된 연결망을 형성했다. 선호연결 연결망에서는 연결선을 두드러지게 많이 가진 핵심 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들이 여러 개 연결된 형태가 나타났다.

세 가지 모의생성 연결망과 뉴스 보도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을 비교해보기 위해 연결 수 분포(degree distribution)를 살펴봤다. 연결 정도는 연결망에서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연결망 분석 연구

에서 연결망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노드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선호연결 연결망의 노드 분포가 뉴스 보도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의 노드 분포와 가장 유사했다. 선호연결 연결망은 멱함수(power law) 분포를 따르는데, 불균등성(unevenness)이 멱함수 분포를 가진 연결망의 특징이다. 멱함수 분포는 대개의 현실 연결망에서 대다수의 노드들은 소수의 링크만을 갖고 있고, 다수의 작은 노드들은 이례적으로 많은 링크를 가진 소수의 큰 허브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32].

3. 연구문제 3: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분야의 주제어 연결망의 하위 집단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하위 집단을 구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스피클라스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값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부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된 주제어 숫자가 31 미만인 주제어를 배제했을 때 가장 선명한 하위집단 7개가 드러났다. 따라서 국내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하위 집단은 7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7개의 하위집단과 각 집단에 속하는 주제어는 [표 6]에 제시했다.

하위집단 1에는 포함된 프레임과 의제설정은 주제어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연결망의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가 어떻게 뉴스의 틀을 짓고 의제를 설정하는지, 즉 미디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하나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국내 뉴스 보도 분야 연구의 하위집단별 주제어

하위 집단	주제어
1	프레임, 국가이미지, 국제뉴스, 이데올로기, 뉴스보도, 여론, 의제 설정, 공론장
2	저널리즘, 객관성, 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 조선일보, 소셜미디어, 취재원
3	인터넷, 신뢰도, 인식, 관여도, 명예훼손, 댓글저널리즘, 상호작용성
4	기사, 신문기사, 잡지, 광고, 신문, 텍스트언어학, 기사제목, 동아일보, 상업주의
5	뉴스, 영화, 미디어이용, 정치참여, 뉴스미디어, 사실
6	댓글, 게이트키퍼, 경성뉴스, 여성뉴스, 포털뉴스, 블로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온라인저널리즘
7	미디어, 방송뉴스, 내용분석, 뉴스가치, 언론, 표현의자유, 공정성, 선거보도, 시민저널리즘

하위집단 2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취재원이자 저널리즘의 한 구성원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집단 3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범람하면서 신뢰도와 명예훼손의 문제가 부각되고, 인터넷 뉴스 발달에 따른 댓글의 성장을 두고 저널리즘 측면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비춰 보인다. 하위집단 4는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사와 제목을 살펴보는 연구, 기사나 광고의 상업주의를 다루는 연구가 한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집단 5는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성향과 정치참여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위집단 6의 핵심어는 인터넷뉴스를 비롯한 온라인 저널리즘이 세를 불리면서 뉴스의 연성화 정도를 살피기 위한 연구가 한 그룹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학 등의 연구(2008)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처럼, 인터넷 미디어 관련 논문이 주요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위집단 7은 방송뉴스와 온라인뉴스를 중심으로 뉴스가치와 공정성, 표현의 자유가 주요한 주제로 다루지고 있으며, 주로 내용분석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거보도를 둘러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VII. 논의

이 연구는 연결망 분석을 이용해 뉴스보도 연구논문의 주제어의 연결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뉴스보도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 구조를 파악했다. 기존의 주제어 연결망 분석이 주제어의 중심성을 파악하는데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연결망 구조를 파악해 뉴스보도 연구동향이 맥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밝혔고, 주요 주제어의 인접어를 파악해 주요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살폈다. 또한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 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인 스펀클라스 기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두드러지게 밝혀진 현상은 연구의 과도한 쏠림이다. 지난 10년간 뉴스보도 연구의 이론적 틀에서 주요 주제어로 파악된 것이 프레임, 의제설정, 제삼자효과, 선택적노출 및 이용과충족이다. 이중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결빈도가 376회로서 두 번째로 높은 의제설정의 103회보다 무려 3배나 많다. 제삼자효과, 선택적노출, 및 이용과충족은 연결빈도가 프레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4개의 중심성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접, 중개, 고유벡터, 페이지순위 등 중심성에서 프레임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제삼자효과, 선택적노출, 이용과 충족 등의 연구는 4개 중심성 지표의 상위 20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근접중심성을 연도별로 나누었을 때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2007년을 제외하고 10년간 매년 근접 중심성 상위에 오른 연구주제였다. 뉴스 보도 관련 연구의 주제어 연결망과 3가지 대표적 연결망 유형과의 비교에서도 어느 한 쪽으로 극명하게 치우치는 맥함수 분포를 따르는 연결망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뉴스보도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틀은 프레임과 의제설정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뉴스보도가 한 분야에 집중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바라바시[33]의 선호연결 연결망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바라바시는 연결망 내의 모든 노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노드가 먼저 생기고 이 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들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연결망은 초기에 발생한 노드를 중심으로 연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망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같은 원리를 학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학문에는 모든 이론이 동시에 소개된 게 아니라 먼저 소개되는 이론이 있다. 먼저 소개된 이론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게 된다.

미디어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그 현상이 미디어의 작용에 의한 효과의 작용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작용인지 혹은 양자의 상호적 관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뉴스보도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효과연구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뉴스보도 연구는 이론만 치우친 게 아니다. 연구 영역 역시 한쪽으로 쏠려 있다. 정치, 경제 뉴스 외에 과학보도, 국제뉴스, 관광 같은 주제어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문화뉴스, 스포츠뉴스, 생활뉴스와 관련된 주제어는 주요한 주제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언론학 분야 주요 학술지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논문을 내용분석한 문종대(200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구 내용면에서 1990년대 보다는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연구 영역의 편향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법론 면에서는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및 Q방법론이 주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이나 실험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논문의 주제어를 선정할 때 설문이나 실험을 주제로 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매체별로는 과거 신문 뉴스 연구가 방송 뉴스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수행됐던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은 방송 뉴스와 온라인뉴스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우세한 이론으로 나타난 프레임과 의제설정 이론과 방송뉴스, 인터넷, 온라인신문이 동시출현했으며, 신문기사는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기사를 이용한 프레임 연구에서 신문기사를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연구자군이 신문기사를 주제로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통매체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연구가 모두 균형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뉴스보도연구를 7개의 하위집단을 군집했을 때 3개 군집이 새로운 미디어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소셜미디어가 주요 취재원이자 저널리즘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현상을 반영해 저널리즘, 객관성, 사회연결망서비스, 소셜미디어, 취재원 등에 연구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양방향성의 특징을 지닌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보급에 따른 미디어 수용자의

뉴스생산 참여현상을 반영해 인터넷, 신뢰도, 인식, 관여도, 명예훼손, 댓글저널리즘, 상호작용성도 군집을 이뤘다. 또한 포털의 게이트키퍼 등 언론으로서 기능하는 현상을 반영해 댓글, 게이트키퍼, 경성뉴스, 연성뉴스, 인터넷뉴스, 온라인저널리즘의 주제어가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미는 연결망 분석으로 뉴스 보도 관련 연구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흐름을 계량화함으로써 국내 뉴스 보도 연구에 대한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뉴스보도 연구는 이론의 경우 프레임, 연구대상은 정치현상 등으로 편향돼 있으나, 매체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의 역할이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면, 국내의 뉴스보도 연구는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뉴스보도 분야의 경우 적용하는 이론적 틀의 편향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틀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한계가 없지 않다. 먼저 논문의 저자들이 기술하는 주제어의 선정에 주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주제어 분석만으로 그 논문의 성격을 온전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논문의 초록 혹은 더 나아가 논문의 전문을 추출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김수연, 김대욱, 최명일, “한국 광고홍보학 연구경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5권, 제1호, pp.59-85, 2013.
- [2] 문종대, “1990년대 이후 저널리즘 연구-수요 전환의 위기,” 한국언론학보, 제45권, 특별호, pp.99-127, 2001.
- [3] 권혁남, “텔레비전의 15 대 대통령선거 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3권, 제5호, pp.5-44, 1999.

- [4] 양승찬,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와 그 보도에 대한 이슈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3권, 제1호, pp.83-119, 2007.
- [5] 김은주, 방정배, “뉴스통신사 선거보도 뉴스프레임 변동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5호, pp.90-125, 2010.
- [6] 강진숙, “재난보도의 현실구성방식 연구:‘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관한 TV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연구, 제5권, 제1호, pp.117-146, 1996.
- [7]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97-129, 2008.
- [8] 박동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41-248, 2009.
- [9] 백선기, 이옥기,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 분석과 보도 양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일국제심포지엄 발제문, 2011.
- [10] 윤영철,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7권, pp.48-81, 2000.
- [11] 신태범, “국내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분석 대상과 주제, 이론 및 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9권, 제2호, pp.200-249, 2013.
- [12] 임종섭,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흐름 분석: 1995년부터 2012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pp.67-102, 2014.
- [13] 박대민,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6호, pp.234-262, 2013.
- [14] 김현희, “저자들의 동시인용과 하위주제간 추이행렬 시스템을 통한 주제문헌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6권, 제2호, pp.21-44, 1989.
- [15] 김영준, 김채환, “국내 언론학의 지적 구조 매핑 (Mapping) 에 관한 연구: 1989~2006년 저자동시인용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5권, 제3호, pp.155-184, 2007.
- [16] 김광재, 박종구, “저자동시인용 분석방법을 이용한 혁신확산 연구의 지적구조,”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6호, pp.52-87, 2011.
- [17] 감미아, 송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pp.53-77, 2012.
- [18] 박지영, 김태호, 박한우,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셀러브리티의 SNS 메시지 탐구,” 방송통신연구, 제82호, pp.36-74, 2013.
- [19] 장아름, 박지영, 박한우,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7권, 제2호, pp.939-949, 2015.
- [20] 박지영, 박한우, “의미망 분석을 통한 페이스북 대중여론의 역동성 분석 : 서울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7권, 제3호, pp.1557-1571, 2015.
- [21] 김용학, 김영진, 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1호, pp.117-140, 2008.
- [22] H. W. Park and L. Leydesdorff, “Knowledge linkage structures in communication studies using citation analysis among communication journals,” Scientometrics, Vol.81, No.1, pp.157-175, 2009.
- [23] 차민경, 권상희,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 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2호, pp.88-120, 2015.
- [24] 최윤정, 권상희,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1권, 제1호, pp.241-286, 2014.
- [25] 남인용, 박한우, “대권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pp.79-107, 2007.
- [26] 문안나, “한국 사회의 IR (Investor Relations) 개념-1994~ 2014년 신문기사 내용분석 및 의미연

- 결망 분석," 홍보학 연구, 제20권, 제1호, pp.50-78, 2016
- [27] 김만재, 전방욱, "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인간배아복제 신문보도 분석," 생명윤리, 제13권, 제2호, pp.19-34, 2012.
- [28] 박성희,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pp.220-254, 2009.
- [29] C. J. Chung and H. W. Park, "Textual analysis of a political message: The inaugural addresses of two Korean president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49, No.2, pp.215-239, 2010.
- [30] 김태구, 조남욱, 홍정식,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국내 영화 시장의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93-107, 2014.
- [31] 이윤경, 신현일, 구자을, 김학용, "소셜 삼국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364-371, 2009.
- [32] 이세호, "프로배구 선수의 사회연결망 구조와 자원교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438-447, 2012.
- [33] A. L. Barabasi,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강병남 김기운 역,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아시아, 2002.
- [34] C. T. Butts, "Social network analysis: A methodological introduc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1, No.1, pp.13-41, 2008.
- [35] M. Steyvers and J. B. Tenenbaum, "The Large-scale structure of semantic networks: Statistical analyses and a model of semantic growth," Cognitive science, Vol.29, No.1, pp.41-78, 2005.
- [36] J.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Handbook*, 김효동 김광재 역(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37] 박기영,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14.
- [38] R. A. Hanneman and M Riddle,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at at <http://faculty.ucr.edu/~hanneman/>), 2005.
- [39] 허명희, *R을 활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입문*, 파주: 자유아카데미, 2014.
- [40] L. Leydesdorff, "Betweenness centrality as an indicator of the interdisciplinarity of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58, No.9, pp.1303-1319, 2007.
- [41] R. C. Team,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Internet], Vienna, Austria: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2013. Document freely available on the internet at: <http://www.r-project.org>
- [42] G. Csardi and T. Nepusz, "The igraph software package for complex network research," InterJournal, Complex Systems, Vol.1695, No.5, pp.1-9, 2006.
- [43] J. Reichardt and S. Bornholdt, "Statistical mechanics of community detection," Physical Review E, Vol.74, No.1, pp.016-110, 2006.
- [44] V. A. Traag and J. Bruggeman, "Community detection in networks with positive and negative links," Physical Review E, Vol.80, No.3, pp.36-115, 2009.
- [45] E. Eaton and R. Mansbach, "A Spin-Glass Model for Semi-Supervised Community Detection," In Twenty-Six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2.
- [46] 송현주,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3호, pp.308-336, 2006.
- [47] 서희정, 양승찬, "제3자 관련 정보제공이 신문독자의 감정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22호, pp.81-130, 2011.
- [48] 김상호,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언

론과학연구, 제7권, 제3호, pp.5-38, 2007.

[49] 이상록, 윤영민, “스마트 폰 앱 뉴스의 연성화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pp.330-354, 2012.

저자 소개

조 이 영(Yiyoung Cho)

정회원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학사)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박사 과정

<관심분야> : 미디어 심리, 네트워크 분석

안 도 현(Dohyun Ahn)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학사)
- 2006년 5월 : Colorado State University, Dept of Journalism and Technical Communication (M.S.)

▪ 2009년 12월 : University of Alabama, College of Communication(Ph.D.)

▪ 2014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심리, 인지과학, 감정심리, 데이터과학